

## 일본 초기 개신교의 신 용어 ‘神(かみ)’ 번역사에 대한 고찰

— 중국 초기 개신교의 용어 논쟁과 관련하여 —

황예렘\*

### 1. 들어가는 말 - 중국 초기 개신교의 신 용어 논쟁에 대한 개괄

예로부터 중국, 한국, 일본, 류큐(현재의 오키나와), 베트남 등 동아시아 지역은 한자 문화권에 속해 왔다. 19세기의 중국의 영·미 선교사들은 유럽 대륙을 다 합한 인구보다도 더 많은 중국의 영혼들과 중국 대륙 인구 외에 동남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화교와 일본, 한국 등 한자 문화권을 인식하여 한문 성경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sup>1)</sup> 그리고 19세기 선교사들에 의해 번역된 한문 성경은 한국과 일본 등 한자 문화권에서 반포되어 읽혀졌다.<sup>2)</sup> 초기, 한국에서 주로 읽혀진 한문 성경은 하나님을 ‘上帝’(상제)로 번역된 대표본(The Delegates' Version)이었으며 일본에서 주로 읽혀진 성경은 하나님을 ‘神’(신)으로 번역한 브리지만-쿨벗슨역(The Bridgman- Culbertson's Version, 이하 ‘BC역’으로 표기)이었다.

필자가 본지에서 논하고자 함은 방대한 중·한·일 성경 번역사를 다루고자 함은 아니다. 다만 19세기, 한문으로의 성경 번역이 중국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한자 문화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번역이었음을 미리 밝혀두고자

---

\* 현재 東京大學 대학원 박사과정.

1) A. Wylie, “The Bible in China”, *The Chinese Recorder and Missionary Journal* 1 (1868), 146; “The Chinese Language”, *Chinese Repository* 3 (1834), 2-3; “Chinese Language and Dialects”, *The Missionary Herald* 31 (1835), 197-198; “Memoirs of the Life and Labors of Robert Morrison D. D., F. R. S. & c. Compiled by his widow”, 2 Vols., London, 1839, 552, 544, *Chinese Repository* 10 (1841), 35; Ch. S. Estes, “Christian Mission in China”, Ph. D. Dissertation (Johns Hopkins University, 1895).

2) 岡部一興編, 『へボン在日書簡全集』, 高谷道男·有地美子訳 (東京: 教文館, 2009), 81; 이만열, 옥성득, 류대영, 『대한성서공회사』 I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90.

함이다. 본고에 있어서는 동아시아 성경 번역 역사 중, 일본 초기 개신교의 성경번역에 있어, God의 번역어로 ‘神-かみ’(가미)라는 용어가 채택되게 된 역사적 경위를 고찰하고자 한다.

엄밀히 살펴본다면, 일본에는 유일신, 세상의 창조주, 절대자를 가리키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어 ‘가미’는 한국말로 ‘신’(神)이라는 한자어이고 이 용어는 일본의 주요 종교인 신도(神道)에서 신앙의 대상이 되는 여러 신들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또한 일본의 만화나 고대 설화에서도 흔히 등장하며 일본인들에게는 두려운 존재이기보다 인간과 함께 하는 친근감 있는 존재이다. 일 퍼센트 가량의 기독교 신자만이 존재하는 일본에서<sup>3)</sup> 일반인이 ‘가미’라는 용어를 들었을 때, 유일신, 창조주와 같은 절대자의 관념을 떠올리기는 결코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창조주, 절대자의 이미지를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고유명사와 같은 하나님, 하느님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기독교 상황과는 사뭇 다르다. 한국과는 전혀 다른 기독교 용어 ‘가미(神)’로의 번역은 19세기, 중국의 초기 개신교 성경 번역 역사에서, 기독교의 하나님 즉 ‘God’을 ‘상제’로 번역할 것인가 아니면 ‘신’으로 번역할 것인가에 대해, 영·미 선교사들 사이에서 발생한 신 용어 논쟁과 관련한다.

19세기의 한문 성경 번역사에 있어, 개신교 선교사들의 용어 논쟁의 역사는 길게 본다면 한문으로 최초로 성경이 번역된 1810년대에서 20세기 초의 화합본(Union Version)이 완성되기까지 1세기 이상에 걸쳐 발생한 중국 개신교의 논쟁이었다. 본고에서 일컫는 ‘용어 논쟁’(Term Question)이라 함은 난징 조약(南京條約, 1842) 이후 영·미선교사들 사이에 발생한 논쟁으로 ‘상제’로 번역한 대표본(1854)과 ‘신’으로 번역한 브리지만-컬벗슨역(1863, 이후 ‘BC역’으로 표기)이 발간되기 전까지의 신 용어 논쟁을 일컫는다.<sup>4)</sup>

영·청의 아편전쟁 이후 체결된 난징 조약 이후 홍콩과, 상해(上海), 광저우(廣州), 푸저우(福州), 샤먼(廈門), Ningbo(寧波) 등 5개의 항구도시에서 선교활동이 가능해지고, 1843년 홍콩에서 최초로 열린 중국의 개신교 선교사 대회에서 성경을 공동으로 번역할 것을 결의하게 된다. 중국에서 일부 항구 도시에서나마 선교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을 당시에는, 런던선교회 선교

3) 일본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의 종교 통계조사표(2011년 12월 31일).

<http://www.e-stat.go.jp/SG1/estat/List.do?bid=000001047640&cycode=0>

4) 텐진조약(天津條約, 1858)과 북경조약(北京條約, 1860)으로, 중국 내륙지역에까지 선교가 가능해진 이후 ‘天主’와 ‘上主’ 등 제3의 용어도 등장하며 용어 논쟁이 재 점화되나 본고에서 다루는 용어 논쟁은 난징조약(1842) 이후 발생하게 되는 영·미선교사들의 논쟁을 일컫는다. 본고의 19세기의 한문성경의 번역사와 용어논쟁에 있어 주로 참고한 자료는 *The Chinese Repository*; *Chinese Recorder and Missionary Journal*; O. J. Zetzsche, *The Bible in China* (Sankt Augustin’ Monumenta Serica Instiute, 1999) 등이다.

사들이 주축이 되어 번역한 ‘신’역의 모리슨-밀른역(『神天聖書』, 1823)과 ‘상제’역의 4인역(四人小組訳, 혹은 메드허스트-귀츨라프역, 1839)의 한문 성경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당시 ‘상제’역을 사용하고 있었던 런던선교회 선교사(메드허스트, 귀츨라프, 렉 등)들은 ‘상제’를 주장하였고 중국 선교와 성경 번역에 뒤늦게 합류한 미국의 선교사(로우리, 부운, 브리지만 등)들은 ‘신’의 사용을 주장하였다.<sup>5)</sup> 하지만 두 진영은 God의 번역어와 아울러, Holy Spirit 등의 주요 용어, 번역의 방침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다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런던 선교회 중심의 ‘상제’파와, 미국인 선교사들이 중심이 되는 ‘신’파가 각각 독립적으로 성경을 번역하기로 결정한다. 그리하여, 영국성서공회(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의 후원으로 1854년 ‘상제’역의 대표본이, 미국성서공회(The American Bible Society)의 후원으로 1863년, ‘신’역의 BC역이 발간되기에 이르렀다.<sup>6)</sup>

이상은 필자의 연구 논문 “상제인가, 신인가-19세기 개신교 성경의 한역 과정으로 본 용어 논쟁의 역사적 고찰”의 일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설명한 것이다.<sup>7)</sup> 중국에서의 용어 논쟁의 역사를 논함이 본고의 목적이 아니므로, 중국의 용어 논쟁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배경 설명으로 대신하고, 일본 기독교의 신 용어 ‘가미’와의 연관성을 논하며 중국에서의 용어 논쟁에 대한 설명을 보충코자 한다. 이에 앞서, 개신교보다 먼저 전래된 일본의 가톨릭의 신 용어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자.

5) 상제파는 메드허스트(W. H. Medhurst, 1796-1857), 귀츨라프(K. F. A. Gützlaff, 1803-1851), 렉(James Legge, 1815-1897), 밀른(W. C. Milne, 1815-1863), 스트로낙 형제(Alexander Stronach, 1800-?, John Stronach, 1810-1888)이고, 신파는 브리지만(E. C. Bridgman, 1801-1861), 로우리(Walter M. Lowrie, 1819-1847), 부운(William J. Boone, 1811-1864), 브라운(Samuel R. Brown, 1810-1880) 등이다.

6) 대표본(代表本, Delegate Version)은 영국성서공회의 후원 아래 1852년 신약이, 1854년에는 구약이 출판되었다. ‘God’는 ‘上帝’, ‘Holy Spirit’는 ‘聖神’으로 번역되었다. 반면 BC역은 미국성서공회의 후원으로 『新約全書』는 1859년, 『旧約全書』는 1863년 발행되었다. BC역에는 ‘God’는 ‘神’, ‘Holy Spirit’는 ‘聖靈’으로 번역되어 있다.

7) 黄イエ렘, “「上帝」か「神」か-19世紀プロテスタント聖書の漢訳過程に見る用語論争の考察”, 博士前期課程論文(立教大学, 2013). 필자의 상기의 연구는 중국 초기 개신교의 성경 번역 과정에서 발생한 신 용어 논쟁에 관해 고찰한 논문으로, 중국의 용어 논쟁과 관련하여 일본과 한국의 초기 개신교 성경 번역과 신 용어에 대해서도 논하였다. 본고는 일본 기독교의 신 용어 ‘가미’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한중일 초기 성경 번역본과 일부 용어 번역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도 참고할 만하다. 참고, 민영진, 전무용, “한국어 번역 성경에 나타난 중국어 성경과 일본어 성경의 영향”, 『성경원문연구』 19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6), 176-199.; 이환진, “19세기 중국 개신교회의 용어 논쟁 그리고 한국 개신교회와 일본 개신교회의 하느님 용어-제임스 렉(James Legge)과 『대표본』(신약, 1852)을 중심으로”, 『신학과 세계』 79, 7-63.

## 2. 개신교 전래 이전의 가톨릭의 신 용어에 대한 개략<sup>8)</sup>

일본에 개신교가 전래되기 3세기 이전, 일찍이 16세기 중반, 예수회의 프란시스코 자비에르(Francisco de Xavier, 1506-52)에 의해 가톨릭이 전래되던 초기에는, 불교 진언종의 본존을 일컫는 ‘대일여래(大日如来)’의 ‘대일’(大日, 일어 발음- 다이니치)<sup>9)</sup>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불교 용어의 사용으로 오해가 일자, 불가타 성경의 라틴어 ‘데우스’(Deus, 영어성경 ‘God’에 해당)를 음역하여 ‘데우스’(일어 발음- 데우스)라 칭하였다.

에비사와 아리미찌(海老澤有道)에 의하면, 1590년까지 ‘데우스’(데우스), ‘天道’(천도, 일어 발음-덴또), ‘天主’(천주, 일어 발음-덴슈), ‘天帝’(천제, 일어 발음-덴페이) 등이 혼용되어 사용되었지만, 1591년, 『기독교 교리』(Doctrina Christiana)에서 용어 ‘데우스’로 통일된 이후, ‘천도’나 ‘천주’ 등의 용어는 단지 관용적으로만 잔존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sup>10)</sup> 특히, ‘천주’라는 용어가 중국보다 일본에서 먼저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에비사와는 기리시탄<sup>11)</sup>들이 ‘천주’ 사용을 배제하였지만 에도 시대<sup>12)</sup>에 들어, 중국의 가톨릭 관련 서적이 유입되며 일반인들 사이에서 ‘천주’, ‘천주교’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며 일반화되었다 한다.<sup>13)</sup> 즉, 일본에 ‘천주’라는 용어가 에도 시대에 재유입 되어 일반화되었다는 주장이다. 일본에서 과연, ‘천주’라는 용어가 먼저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논의는 본 논고에서는 접어두고, 일본의 가톨릭 신 용어 변천사에 대해 요약하여 재언하자면, 가톨릭의 신 용어로서 가장 먼저 시도된 용어가 불교 용어 ‘대일’이었다가, 음역의 ‘데우스’와 ‘천’과 관련된, ‘천도’, ‘천주’, ‘천제’ 등의 용어가 혼합 사용되다 ‘데우스’로 통일되어 사용되었다가, 중국의 천주교 서적의 영향으로 ‘천주’

8) 일본의 개신교 전래 이전의 God(Deus) 번역에 대해서는 海老澤有道의 『日本キリシタン史』(塙書房, 1966)와 鈴木範久의 『聖書の日本語』(岩波書店, 2006)를 참조하였다.

9) 鈴木範久, 『聖書の日本語』(東京: 岩波書店, 2006), 1-12.

10) 海老澤有道, 『日本キリシタン史』(東京: 塙書房, 1966), 239-242.; 鈴木範久, “カミの訳語考”, 『秘められた意味』(東京: 東京大学出版会, 1977), 285-286.

11) 기리시탄(キリシタン, 吉利支丹)은 일본에 전래된 가톨릭을 일컫는 말로, 포르투갈어 Christao를 한자로 바꾼 말이다. 다른 한자로는 切支丹 등이 사용되었다.

12) 1603년부터 1867년까지의 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부터 15대 쇼군(將軍) 요시노부(慶喜)가 정권을 조정에 반환하기 전까지의 막부 시대를 일컫는다.

13) 海老澤有道, 『日本キリシタン史』, 244. 김선희는 천주라는 용어가 일본에서 먼저 사용되었다는 에비사와의 주장에 대해 회의적이다. 같은 한자 문화권이기에 천주라는 용어가 일본에서 먼저 사용된 가능성은 없지 않지만 이 때문에 중국의 예수회에서 천주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힘들다고 보고 있다. 마테오리치가 신 용어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 허위로 보고하거나 그러한 기록을 제외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이다(김선희, 『마테오리치와 주회, 그리고 정약용』(서울: 심산출판사, 2012), 119-121.

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일본의 가톨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개신교와 동일한 ‘가미’이다. 스즈키 노리히사(鈴木範久)에 의하면 일본 가톨릭에서 사용되던 ‘천주’라는 용어는 1959년 이전까지 사용되었으나 가톨릭의 공교요리(『公教要理』)의 개정에서, ‘천주’를 ‘가미’로 변경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후 ‘가미’로 통일되었다고 설명한다.<sup>14)</sup>

그리하여 현재, 일본의 모든 기독교에서는 ‘가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가미’라는 용어가 기독교의 신 용어로서 가장 먼저 사용된 시기는, 19세기 중반 이후, 개신교가 일본에 전래되기 시작할 무렵부터이다. 그럼, 왜 개신교는 ‘가미’라는 용어를 처음부터 사용하게 되었을까. 개신교의 신 용어 ‘가미’에 대해 논하는 일본의 선행 연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3. 개신교의 신 용어 ‘가미’에 대한 일본의 선행 연구

몇 편 되지 않는 일본의 기독교 용어 ‘가미’에 관한 선행 연구는 기독교 신 용어 ‘가미’에 대한 설명에 있어, 중국 기독교의 ‘God’ 번역사를 아울러 기술하고 있음은 공통적인 사항이다. 서두에서 중국에서의 ‘용어 논쟁’에 있어 대표본과 BC역이 발간되기까지, 미국 선교사들이 주로 ‘신’의 사용을 주장하였음을 미리 간략하나마 설명하였다.

마에지마 키요시(前島潔, “日本に於ける基督教用語「神」に就いて”, 1938)는 일본어 성경 번역사에 있어 ‘가미’로의 번역은, 메이지 초기<sup>15)</sup>의 선교사가 거의 미국인 선교사였다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서술한다.<sup>16)</sup> 스즈키 노리히사(“カミの訳語考”, 1977) 역시, 마에지마의 연구를 인용하여 ‘가미’로의 번역이 중국에서의 용어 논쟁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sup>17)</sup> 야나부 아끼라(柳父章)의 저서 『ゴッドと上帝-歴史のなかの翻訳者-』(1986)는 최초의 개신교 중국 선교사인 로버트 모리슨(Robert Morrison, 1782-1834)의 번역관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지만 일본에서의 God 번역어 ‘가미’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야나부는 ①일본어 성경의 주요 저본이 BC

14) 鈴木範久, 『聖書の日本語』, 204. 1959년에 개최된 일본 가톨릭의 주교회의에서 『공교요리』의 개정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때 ‘천주’가 ‘가미’로 개정된다.

15) 메이지 시대는 1868년에서 1912년에 해당한다.

16) 前島潔, “日本に於ける基督教用語「神」に就いて”, 『神學研究』 29:6 (1938), 15.

17) 鈴木範久, “カミの訳語考”, 『秘められた意味』(東京: 東京大学出版会, 1977), 306.

역이었다는 점과, ②일본어 성경의 번역이 주로 미국인 선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기에 God의 번역어가 ‘가미’가 되었다<sup>18)</sup>고 이전의 연구보다 명확히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일본의 국어학자 스즈키 히로미쓰(鈴木広光, “神の翻訳史”, 2005)는 ‘가미(神)’라는 용어가 일본에서 신격을 나타내는 총칭 명사이기 때문에, ‘가미’로 결정되었다<sup>19)</sup>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에서, 성경에서의 엘로힘(God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이 총칭 명사라는 주장으로 용어 ‘신’을 주장한 입장이 미국 선교사들(로우리, 부운)이었다<sup>20)</sup>는 것을 감안하면, 스즈키 히로미쓰(2005)의 설명 역시, 일본어 ‘가미’로의 번역이 중국에서의 용어 논쟁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열거한 선행 연구는, 일본의 기독교 용어 ‘가미’가 19세기의 중국에서의 용어 논쟁과 관련되어 있음을 간략히 서술하고는 있으나, 그 관련성을 충분히 논증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일본의 개신교가 용어 ‘가미’를 채택한 배경에 대해, 상기 열거한 ‘가미’에 대한 선행연구, 일본어 성경번역에 대한 선행연구, 19세기의 자료를 중심으로, 중국에서의 용어 논쟁과 관련하여 이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 4. 19세기 중국 개신교의 ‘용어 논쟁’과의 연속성 - 神에서 神(かみ)로-

1843년 홍콩에서의 선교 대회를 거쳐 개신교 성경의 공동 번역이 결의되고 이를 위해 선출된 대표자 성경 번역 위원회 사이에서 용어 논쟁이 심화되기 시작하여 결국 대표본과 BC역의 발간으로 이어지는 영·미선교사들의 ‘용어 논쟁’과 일본 개신교의 ‘가미’ 번역과의 관계에 대한 배경은 다음의 세 사항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일본이 미국에 문호를 개방한 시기와 관련한다. 일본은 미·일 화친조약(1854)과 미·일 수호 통상조약(1858)을 시작으로, 점차 외국인의 일본 거류를 허가하기 시작하였고, 미국인 선교사들도 합법적으로 일본에 거주

18) 柳父章, 『ゴッドと上帝-歴史のなかの翻訳者-』(東京: 筑摩書房, 1986), 121-122.

19) 鈴木広光, “神の翻訳史”, 『国語国文』 74:2 (京都: 中央図書出版社, 2005), 13.

20) W. M. Lowrie, “Remarks on the Translation of the words God and Spirit, and on the Transferring of the Scripture Proper names into Chinese”, *Chinese Repository* 14 (1845), 101-103; “Remarks on the words and phrases best suited to express the names of God in Chinese”, *Chinese Repository* 15 (1846), 573; W. J. Boone, “An Essay on the proper rendering of the words Elohim and Theos into the Chinese Language.”, *Chinese Repository* 17 (1848), 18-19.

하기 시작했다.<sup>21)</sup> 바로, 일본이 미국에 대해 문호를 개방한 시기는, 중국에서는 미국인 선교사와 영국의 런던선교회 선교사의 쌍방의 입장이 서로 치열하게 대립하였던 시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 중국에서는 미국성서공회가 God에 해당하는 용어로 ‘신’을 사용할 것을 이미 결정하였었고, 런던선교회의 선교사들과 미국인 선교사들은 각자 독자적으로 성경을 출판 혹은 번역하고 있었다. 중국에서는 영국성서공회의 후원 아래 1854년, ‘상제’역의 대표본이 발간되었고(신약-1852), 미국성서공회의 후원의 ‘신’역의 BC역은 미국인 선교사 브리지만과 켈벗슨에 의해 번역 중에 있었고 1863년에 발간된다(신약-1859). 한문 성경 번역을 한자 문화권 전체를 염두에 두었던 번역이었음은 이미 밝힌 바 있다. 근대에 있어 일본이 미국에 가장 먼저 문호를 개방하고 또한 미국성서공회가 God에 해당되는 중국의 용어로서 ‘신’으로 이미 결정하여 영국성서공회와는 별개의 신역의 성경으로서 번역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기에, 일본에서 ‘신’에 해당되는 일본어 ‘가미(神)’로 번역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두 번째로, 이미 선행 연구가 지적한 대로, 일본 개국 이후 미국인 선교사들이 일본의 성경 번역을 주도했다는 사실이다.<sup>22)</sup> 이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기의 일본 선교사들은 주로 중국 선교 경험이 있는 선교사들이었고 중국에서의 용어 논쟁에 대해서도 익히 잘 알고 있던 선교사들이었다. 1853년, 1854년 일본에 내항하여 일본에 개국을 요구한 매튜 페리(1794-1858)의 수석 통역사로 일본을 방문하였던 중국 주재의 미국인 선교사 사무엘 윌리엄즈(Samuel W. Williams, 1812-1884)는 성공회, 장로회, 개혁파 대표에게 일본에서의 선교사 자격으로서 경험이 풍부하고 사리 분별이 있어야 하며, 맹목적 선교는 자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다(1868).<sup>23)</sup> ‘신’과의 대표자인 브리지만<sup>24)</sup>에 이어 선교 월간지 *Chinese Repository*의 편

21) O. Cary, 『日本プロテスタント宣敎史-最初の50年(1859-1909年)-』, 江尻弘訳 (東京: 教文館, 2010), 47-60; O. Cary, *Protestant Missions A History of Christianity in Japan*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09).

22) 일본 개신교의 초기 성경 번역사는, 해외에서의 번역 시기와 국내에서의 번역 시기에 대별된다. 본고는, 일본어 ‘가미’ 번역의 원류가 되는 일본 국내에서의 성경번역을 중심으로 다룬다. 최초의 개신교 번역은 귀츨라프(1803-1851)가 표류 일본인 어민의 협력으로 싱가포르 등에서 번역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이다(1837). 요한복음에 있어서는 God에 해당되는 용어로 불교 용어 ‘극락’으로 번역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참조, 海老澤有道, 『日本の聖書』(日本基督教団出版局, 2005), 105-115.

23) O. Cary, 『日本プロテスタント宣敎史-最初の50年(1859-1909年)-』, 江尻弘訳, 60-61.

24) 브리지만의 신파로서의 입장은 본고 각주 59에 간단히 설명하였다. 또한 브리지만의 입장은 다음의 자료에도 일부 소개되어 있다. 이환진, “19세기 중국 개신교회의 용어 논쟁 그리고 한국 개신교회와 일본 개신교회의 하느님 용어-제임스 렉(James Legge)과 『대표본』(신약, 1852)을 중심으로”, 33-37.

집자(1848-1851)이기도 했던 윌리엄즈는 이미 일본어로 마태복음과 창세기를 번역한 적도 있었다. 그는 일본 개국 후 일본에서 일본어 성경 번역을 진행하는 브라운에게 자신이 번역한 사본을 전해주기도 했다(1860 혹은 1861년). 윌리엄즈가 중국에서 ‘신’과에 속해 있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의 주장은 *Bibliotheca Sacra*(1878)에 수록된 글을 통해서도 용어 ‘신’을 지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25)</sup> 또한, 브라운과 같이 중국에서 사역하는 신과로서의 미국 선교사 입장이 일본에서 성경 번역을 주도하게 되는 네덜란드계 미국 개혁신교회 선교사 브라운(Samuel R. Brown, 1810-1880)과 미국의 장로교 선교사 헵번(James C. Hepburn, 1815-1911)에게 영향을 주었음은 당연하다.

오늘날의 일본어 성경의 원류<sup>26)</sup>가 되는 마가복음(『新約聖書馬可傳』, 1872), 요한복음(『新約聖書約翰傳』, 1872), 마태복음(『新約聖書馬太傳』, 1873)을 번역한 브라운과 헵번에 대해 설명하자면, 그들은 중국 선교 경험이 이미 있었고, 중국에서의 용어 논쟁에 대해서도 익히 잘 알고 있었다. 브라운은 1837년부터 약 10여 년간 중국에서 활동한 선교사로 1843년에 홍콩에서 열린 개신교 선교사 대회에도 참석했던 선교사이다. 헵번 역시 1843년부터 1845년까지 중국 샤문(廈門) 지역에서 의료 선교를 하였었다. 또한 중국에서 God의 번역어로서 용어 ‘신’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로우리(Walter M. Lowrie, 1819-1847)<sup>27)</sup>와는, 같은 장로교 선교사로 친한 동료지간이다.<sup>28)</sup> 로우리는 중국에서 ‘신’과의 대표 논객이었으나 1847년 바다에서의 불의한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고, 미국 성공회 소속의 선교사 부운(William J. Boone, 1811-1864)이 ‘신’과의 대표 논객으로 용어 ‘신’ 사용에

25) S. W. Williams, “The Controversy among the Protestant Missionaries on the Proper Translation of the Words God and Spirit into Chinese”, *Bibliotheca Sacra* 35 (1878), 732-778.

26) 헵번-브라운역에 앞서, 귀츨라프역(1837, 요한복음, 요한1,2서), 베헤하임역(1858, 누가복음의 漢日대조본), 고블역(1871)이 있긴 하나, 헵번-브라운역이 일본어 성경 번역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헵번, 브라운에 의해 일본어 성경 번역이 주도되었다.

27) 로우리의 용어 논쟁에 대한 주장은 다음의 세 편의 논문에 나타나 있다. ①“Remarks on the Translation of the words God and Spirit, and on the Transferring of the Scripture Proper names into Chinese”, *Chinese Repository* 14 (1845), 101-103. ②“Terms for Deity to be used in the Chinese version of the Bible: the words Shangti, Tien, and Shin examined and illustrated in a letter to the editor of the Chinese Repository”, *Chinese Repository* 15 (1846), 311-317. ③“Remarks on the words and phrases best suited to express the names of God in Chinese”, *Chinese Repository* 15 (1846), 568-574, 577-601, *Chinese Repository* 16 (1847) 30-34. (참조, 鈴木広光, “神の翻譯史”, 216)

28) 로우리가 헵번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은 로우리의 편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W. Lowrie, *Memoirs of the Rev. Walter M. Lowrie* (New York: Robert Carter & Brothers, 1849), 152, 159, 184, 192, 236, 313 etc.



대한 주장을 펼친다. 앞서 언급했지만, 일본에 있던 미국인 선교사가 중국에서 ‘신’을 지지한 동료의 의견과 용어 ‘신’으로 결정한 미국성서공회의 입장에 따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상황이었다. 또한 이는 일본에서 선교사들 사이에서 용어 논쟁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일본과의 종교 논쟁을 피한다는 것 역시 개국 당시의 미국의 입장이기도 하였다.<sup>29)</sup>

이러한 상황 때문일까, 일본에는 기독교의 신 용어에 대해 논의한 선교사들의 기록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스즈키 노리히사(“カミの訳語考”, 1977)와 스즈키 히로미쓰(“神の翻訳史”, 2005)는 God 번역에 관련한 일본어 번역에 대해 언급하는 선교사의 기록은 브라운이 영국성서공회에 보낸 서신이 유일하다<sup>30)</sup>고 서술한다. 그 서신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31)</sup>

중국에 있어 수많은 논쟁과 분열을 일으킨 문제는, 일본에 있는 저희에게 있어서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God의 용어는 더 이상 문제 되지 않습니다. God에 해당하는 일본어는 ‘가미’로, 이에 해당하는 중국어는 ‘신’입니다. 이로서, (God 용어에 관한) 어려움은 해결되었습니다.

상기의 브라운의 진술은, 중국어 ‘신(神)’에 해당하는 일본어는 ‘가미’이고, 일본에서는 ‘가미’로 God에 대한 용어 문제는 해결되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발생한 격심한 논쟁을 피할 수 있다는 안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신(神)’을 선호했던 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 동일한 한자 ‘神’(일본 음독 - ‘가미’)으로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인 선교사 사이에 God 용어에 대한 논쟁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다음의 진술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이는 아직 선행 연구에서 인용된 적이 없는 진술이다. 중국의 미국인 선교사 머티어(R.M. Mateer)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sup>32)</sup>

일본에서는, 그 문제(God 용어)에 관해서는, 선교사들이 일본에 가기 전에 이미 神으로 결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지혜롭게도 그 어떠한 변화도 시도하지 않았다.

29) O. Cary, 『日本プロテスタント宣敎史-最初の50年(1859-1909年)-』, 江尻弘訳, 47.

30) 鈴木範久, “カミの訳語考”, 305.; 鈴木広光, “神の翻訳史”, 1.

31) S. R. Brown, “Japan”, *The Sixty-Fourth Report of 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1868), 200-202.

32) R. M. Mateer, “Some Objections”, *The Chinese Recorder and Missionary Journal* 37 (1906), 313.

만약, 상기의 기술대로, God 용어에 대해 미국인 선교사가 일본에 방문도 하기 전에 용어 神(가미)로 결정되어 있었다고 본다면, 일본에서는 기독교의 신 용어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중국의 용어 논쟁에서의 미국인 선교사의 ‘신’ 지지 입장이 그대로 적용되었다는 의미이다.

이에 대해 야나부(1986)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며, 중국어 ‘神’과 일본어 ‘神’(가미)는 그 의미가 같지 않다. 성경의 일본어 번역을 주도한 이가 미국인 선교사들이었고 ‘神’이라는 문자가 중국이나 일본이나 그 문자의 형태가 같기에, 일본에서도 역시 예배의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그 이상의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았다”<sup>33)</sup>고 비판한다. 용어 ‘가미’에 대해 그 문제점을 일찍이 인식하고 이의 문제를 우회적으로 간략히 논하였던 마에지마(1938) 역시 “많은 미국계 선교사가 용어 ‘神’을 지지하였고 일본에 와서는 동일 문자 ‘神’을 ‘가미’라 칭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야말로 최적의 용어라고 확신하고 일거에 ‘가미’라는 용어로 결정했을 것이다”<sup>34)</sup>라고 서술 한다.

중국에서의 용어 논쟁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논할 내용은 이 역시 당연한 사항이지만 일본에서 미국인 선교사들이, 자국의 선교사들이 번역한 한문 성경인 BC역을 주요 저본으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일본이 문호를 개방하고 일본 주재의 선교사들이 일본어로 성경을 번역할 시기에는 중국에서의 상제파와 신파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었던 시기였고, 대표본과 BC역은 서로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성경이었다. 한문 성경이 초기의 한국어 성경과 일본어 성경 번역에 영향을 미쳤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본어 성경 번역을 진행한 헵번과 브라운은, 한문 성경이 일본어 성경 번역의 기초가 되었다고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마가복음을 일본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번역을 시작하고 보니,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번역한 훌륭한 한역 성경이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참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역성경이 일본어 성경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어로의 성경 번역은, 한자에 일본어의 격이나 동사의 어미를 넣어 구를 만들고 문장으로 완성하는 일입니다. (월터·로우리 박사에게, 1861년 4월 17일자, 헵번의 편지) <sup>35)</sup>

성경 번역에 있어 여러 어려움이 중국에서의 우리 동료들의 노작(勞

33) 柳父章, 『ゴッドと上帝-歴史のなかの翻訳者-』, 122.

34) 前島潔, “日本に於ける基督教用語「神」に就いて”, 14.

35) 岡部一興編, 『へボン在日書簡全集』, 81.

作)으로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중국어와 중국 문학은 일본어와 일본 문학과 아주 흡사하며 일본인은 한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양 있는 일본인은 중국인과 마찬가지로 한문 성경을 읽습니다. 이 한문 성경이 일본어 성경 번역에 기초가 되고 있으며, 학식 높은 일본어 교사의 풍부한 일어 지식으로 성서 번역에 있어서 많은 선교사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직면하지 않고 번역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성서공회의 조셉 호도릿치에게, 1864년 2월 11일자, 헵번의 편지)<sup>36)</sup>

두 명의 일본어 교사를 매일 1시부터 5시까지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문 성경을 먼저 읽고 최대한 좋은 번역이 되게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들이 번역한 후 저는 헬라어 또는 히브리어 원전 성경과 대조하며 그들과 함께 번역문을 살펴봅니다. 최대한 적절한 번역이 되도록 정정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J. M. 페리스에게, 1865년 10월 31일자, 브라운의 편지<sup>37)</sup>)

헵번이 ‘중국에서의 우리 동료들의 노작’이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성경의 일본어 번역 작업 시에 참조한 한문 성경은 미국인 선교사 브리지만과 컬벳슨이 번역한 ‘신’역의 성경(1863)임을 짐작할 수 있다. 모치즈키 요우코(望月洋子, 1987)도, 헵번의 일본어 교사가 일본어 번역 시에 참고한 한문 성경은, 헵번의 친구인 컬벳슨(Michael S. Culbertson, 1819-62)과 브리지만이 함께 번역한 성경이라고 서술한다.<sup>38)</sup> 브리지만과 함께 성경 한역 작업에 참가한 컬벳슨은 헵번과 마찬가지로 장로교 선교사였다. 헵번의 1860년 3월 서간<sup>39)</sup>과 같은 해의 5월 14일의 서간에는, 컬벳슨의 아내가 딸과 함께 헵번의 번역 동역자 브라운 저택에 체재한 적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sup>40)</sup> BC역의 역자 컬벳슨과 일본어 성경의 주요 번역자 헵번 그리고 브라운과의 관계는 그들의 서신에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스즈키 노리히사(2000)는 BC역이 헵번-브라운 역의 번역어에 끼친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원전으로서는 그리스어 성경을 기본으로 하면서, 영어 흠정역을 참조했다. 일본인 협력자들은 중국어 번역 성경을 참조했다. 중국어 성경으로서는 헵번과 브라운이 미국인 선교사였기 때문에 브리지만-컬벳슨역을 사용하였다. 이로 인해 神으로 번역되었을 것

36) Ibid., 166-167.

37) 高谷道男編訳, 『S. R. ブラウン書簡集』(東京: 日本基督教団出版局, 1965), 162-163.

38) 望月洋子, 『へボンの生涯と日本語』(東京: 東洋印刷, 1987), 167

39) Ibid., 43.

40) Ibid., 49.

이다.”<sup>41)</sup> 더하여, 스즈키 노리히사(2006)는 ‘신’, ‘성령’, ‘천국’, ‘악마’, ‘안식일’, ‘이방인’ 등 기독교의 주요 용어 22개에 대해, 헵번-브라운역의 요한복음 『新約聖書約翰伝』(1872)과 마태복음 『新約聖書馬太伝』(1873)을 BC역과 대조하여, 22개의 단어 중 14개의 단어가 일치하여, 63% 이상이 BC역과 일치한다고 설명한다.<sup>42)</sup> 또한, 스즈키(2006)는 번역 위원회의 메이지역<sup>43)</sup>에 대해서도, 주요 용어, 30 단어를 선별하여, 대표본, 북경관화역(1872), BC역과 대조하였다. 그 결과, 대표본, 11단어, 북경관화역 13단어, BC역과는 17단어가 일치하여 BC역의 영향이 가장 컸음을 증명한다.<sup>44)</sup> 성경의 일본어 번역에 있어 BC역이 가장 중요한 저본으로 사용된 이유에 대해 헵번은 선교사 회의(1883)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BC역이 직역인데 반해, 대표본과 북경관화역은 의역이기 때문에, 중국인에게는 이해하기 쉽겠지만, 그것은 중국에 맞춘 의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어 번역에 있어서는 참고로 삼기 어렵다.<sup>45)</sup>

이상으로, 일본어 성경 번역에 있어 BC역의 영향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의 선교사의 기록과 스즈키 노리히사의 설명에 의해 어느 정도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다음의 그림 1, 2는 ‘神’(가미)라고 번역된 일본 개신교의 초기 성경 헵번-브라운역의 마가복음 『新約聖書馬可伝』(1872)<sup>46)</sup>과 번역 위원회의 번역, 신약 성경 『新約全書』(1881)<sup>47)</sup>이다.

## 5. ‘神’(かみ)로의 번역에 대한 반응

41) 鈴木範久, “聖書の日本語訳-略史と問題”, 『聖書と日本人』, 鈴木範久, 月本昭男, 佐藤研 外共著(大明堂, 2000), 6.

42) 鈴木範久, 『聖書の日本語』, 8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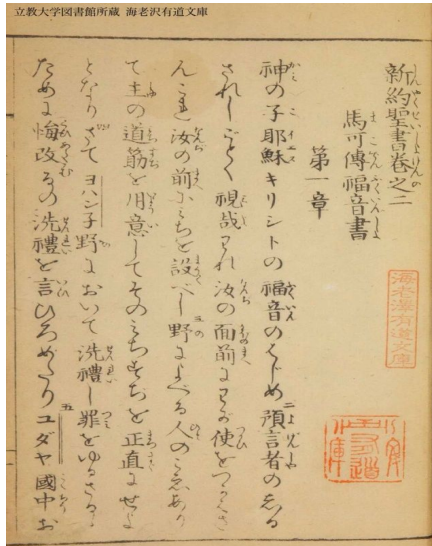
43) 요코하마의 헵번의 진료소에서 1872년 9월 20일부터 25일에 걸쳐, 선교사 회의가 개최되고 여기서 공동으로 일본어 번역을 진행할 것을 결의한다. 브라운, 헵번, 그린(D. C. Green, 1843-1913) 세 명이 위원으로 선출된다(鈴木範久, 『聖書の日本語』, 83-84). 일본의 성경번역위원회에 의해 다시 한 번 헬라어성경과 흠정역 영어성경을 저본으로 한 번역 사업이 추진된다. 이로서 1880년 신약성경(『新約全書』)이, 1887년에는 구약성경(『旧約聖書』)이 완성된다. 이 성경을 메이지역으로 일컫는다.

44) 鈴木範久, 『聖書の日本語』,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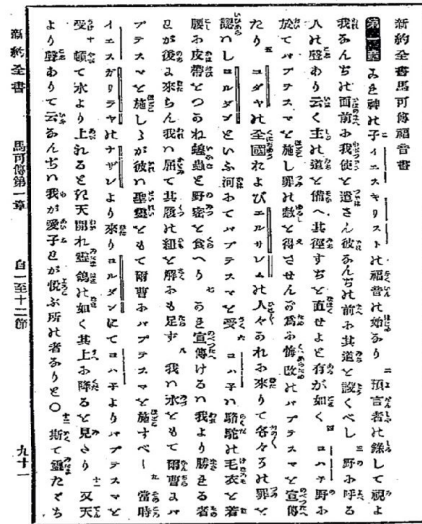
45) Proceedings of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Protestant Missionaries Japan Held at Osaka, Japan, April, 1883 (Yokohama: R. Meiklejohn, 1883).; 鈴木範久, 『聖書の日本語』, 96.

46) 『新約聖書馬可伝』, J. C. Hepburn, and S. R. Brown 訳(横濱: 米國聖書會社, 1872). 본고에서 참조한 『新約聖書馬可伝』(1872)는 도쿄 소재의 립교 대학 도서관 예비사와 자료 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이다.

47) 『新約全書』(横濱: 米國聖書會社, 1881). 본고에서의 『新約全書』(1881)는 일본 국회 도서관 소장의 자료이다.



<그림1> 『新約聖書馬可傳』(1872)



<그림2> 『新約全書』(1881)

다음으로, 중국의 용어 논쟁의 결과로서 나타난 일본의 기독교 신 용어 ‘가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 기독교 용어 ‘가미’에 대한 연구 중, 스즈키 히로미쓰(2005)를 제외하고는, God의 번역어 ‘가미’에 대해 비판적 혹은 반대의 입장으로 접근하고 있다. 마에지마(1938)는, “메이지 초기, 영·미 선교사들이 소위 God에 해당하는 명칭에 일본어 ‘가미’(神, かみ)를 사용한 채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이로 인해 오늘날 오해와 마찰이 발생하기 쉬워졌다”라고 비판한다.<sup>48)</sup> 또한, 마에지마는, 나카무라 케이우(中村敬字, 1832-1891)의 『西国立志編』(메이지 4년)에 ‘神의道’로 번역되어야 할 것을 ‘上帝의道’(상제의 도)라고 번역 하는 등, 메이지 시대의 일본인 저서에서 ‘상제’라는 용어가 적지 않게 나타나는 이유는 자신들이 믿는 새로운 종교는 신도, 불교, 천주교와는 다르다는 것을 명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기술한다.<sup>49)</sup>

스즈키 노리히사(2006)도 기독교의 God을 나타내는 말로서 ‘가미’를 사용되는 것에 저항이 있었고<sup>50)</sup>, 초기 일본 기독교 신도가 기독교의 God을 설명하기 위해, ‘상제’나 ‘천제’(天帝) 등의 유교적 용어나 ‘진정한 가미’(眞の神)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번거로움의 예화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sup>51)</sup> 기독교의 신 용어로서 ‘가미’라는 용어가 당초 부자연스러운 용어였다는 것은 여성평론가이자 비평가였던 이와모토 요시하루(巖本

48) 前島潔, “日本に於ける基督教用語「神」に就いて”, 2.

49) Ibid., 15.

50) 鈴木範久, 『聖書の日本語』, 315.

51) Ibid., 310-316.

善治, 1863-1942)의 다음의 회고록에서도 잘 나타난다.

지금은 ‘사랑’이나 ‘가미’라든지 하는 말의 사용에 있어 조금의 의문도 없이 사용하지만, 당시 ‘사랑’ 등의 어휘에는 조금도 정신적 의미는 내포되지 않았었고 아주 저급한 의미로만 이해되었다. 가미라는 말 역시 매우 다원적인 낮은 의미로밖에 사용되지 않았었다. 우리는 이 말들을 사용하였을 때, 크게 웃을 수밖에 없었다.(이하 생략). “이와모또 요시하루의 무상좌담(撫象座談)”, 쇼와 11년(1936) 12월<sup>52)</sup>.

야마구치 오사무(山口修, 1976)는 ‘가미의 나라’(神の国)로서의 일본을 설명한 뒤, God을 神으로 번역한 것이, 얼마나 근대 일본인의 마음속에 큰 혼란을 가져왔는지, 재차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한다.

일찍이 일본인은, 스스로 ‘가미의 나라’(神の国)로 칭하였다. 분명히 일본 전국에는 신사가 있고 거기에는 가미가 자리 잡고 있다. 모셔지는 가미의 상당수는 이른바 일본 태고의 가미들이지만, 특별한 예로서는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도 신사에 모셔져 있다. 즉 일본인은 가미에 둘러싸여 살고 있고, 그 가미들은 우리 가까이에서 우러러 모실 수 있는 것이다.<sup>53)</sup>

“가미의 나라”(神の国)라고 하는 말이, 기독교적인 “God의 나라”(Godの国)라는 어감으로 일본인에게 제시되었을 때, 일본은 가미에 축복받는 나라, 세계에 으뜸가는 나라라는 발상이 생겨났다. 특히 쇼와 10년대 이후의 일본에 있어서, 이러한 생각이 강조되어, 일본을 비극 속에 빠뜨리는 원인이 되었다. 일본인에게 있어 “神”의 문제는 근대사에 있어 한층 신중하게 재고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sup>54)</sup>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기독교 신 용어로 번역된 ‘가미’는 단순히 기독교의 용어에 머물지 않고, 고대의 ‘가미’ 관념과 기독교의 ‘God’의 개념이 혼합 혹은 혼동된 형태로 근대 일본인에게 제시되어 전쟁 시기에 일본인들이 잘못된 관념을 가지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즉, 스스로를 ‘가미의 나라’라고 칭하였던 일본이 ‘God’이 ‘神’으로 번역됨에 따라, God이 일본 고대의 가미로 이해되거나 혹은 가미(神)가 God로 이해되며, 일본은 가미의 축복

52) 山口玲子, 『とくと我を見たまえ-若松賤子の生涯-』(東京: 新潮社, 1980), 110-111.

53) 山口修, “日本史における“神”の問題”, 『聖心女子大学キリスト教文化研究所報』3 (東京: 聖心女子大学キリスト教文化研究所, 1976), 1.

54) Ibid., 3.

을 받는 나라, 일본은 우월하다는 의식이 발생하고 근대의 전쟁 시기에 이러한 우월감과 자신감이 강조되어 근대사에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비판일 것이다.<sup>55)</sup>

이렇듯, God이 ‘가미’로 번역됨에 따라 여러 문제가 야기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개신교의 초기 성경 번역 당시의 19세기로 다시 돌아와 논한다면, 중국에서, 용어 ‘상제’의 사용은 ‘상제’라는 우상 숭배를 독려하는 것이라고 강력 반대하며 상제파를 이단이라 비판<sup>56)</sup>하였던 신과 미국인 선교사들이, 정작 일본에서는, 중국에서 지지한 ‘신’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일본의 기독교 신 용어로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기독교에 있어 우상 숭배라고 볼 수 있는 신도의 신격 호칭인 ‘가미’를 도입해 버린 결과는 성경 번역사에 있어 아이러니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sup>57)</sup> 19세기 말, 일찍이 리터(H. Ritter)는 그의 저서 *A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 in Japan*(1898)을 통해 God의 번역어, ‘가미’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일본인들에게 있어, 가미라든지, 가미의 아들(예수는 가미의 아들이 된다-필자 주)이라고 하면, (God와 예수는) 그들의 수많은 가미나 가미의 아들의, 하나로 생각되어질 것이다. 태양 여신의 직계 자손으로서의 일본 왕은 가미의 아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일본인들에게 기독교는, (예수를) 단지, 가미의 둘째 아들로 소개하는 것이다.<sup>58)</sup>

리터의 지적대로, ‘가미’라는 용어로 기독교의 God를 일본에 소개하였을 때, God는 여러 가미들 중 하나의 가미로서 소개되는 것이며 일본 기독교에서 가미의 아들이라 표현되는 예수는 일본에 있는 여러 존재의 가미들 중 하나의 가미, 즉 여러 신들 중의 하나인 야훼라는 가미의 아들로 이해될 소지가 다분하다. 선교사들은 일본의 ‘가미’라는 용어를 God와 같은 한 분의 절대적인 신을 나타내는 의미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나 소망이 있었을지 모르지만<sup>59)</sup>, God를 ‘가미’로 번역함에 따라, 오히려 God가 일본

55) Ibid., 1-3.

56) W. J. Boone, “Explanation and Note upon Art III., in the July No of Vol. XVII, entitled A few plain Questions”, *Chinese Repository* 18 (1849), 97-98.

57) 『和英語林集成』(1867, 初版)은 헵번에 의해 편찬된 일본 최초의 일영사전이다. 이 사전에서 가미(‘Kami, カミ, 神’) 항목에 있어 가미는 신도에서 숭배되고 있는 신들(deities)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Kami, カミ, 神, n. God. This Word is applied only to the deities worshipped by the Shinto”, (明治学院, 『和英語林集成』, 初版, 176.)

<http://www.meijigakuin.ac.jp/mgda/main/waeigorin.cgi?zoom=0&mode=01&edition=01&word=kami>

58) H. Ritter, *A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 in Japan* (Tokyo: Methodist Publishing House, 1898), 18-19.



의 여러 가미들 즉 여러 신들 중의 하나의 신으로 전락하고 마는 결과를 초래했을지도 모른다. 이는 19세기 중국의 성경 번역 과정 중에 나타난 God를 상제로 번역할 것인가 아니면 신으로 번역할 것인가로 대립한 영·미 개신교 선교사들의 논쟁의 결과로 빚어진 성경 번역의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 6. 나가는 말

본고에서는 논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는 스코틀랜드의 영국 선교사 존 로스(John Ross, 1842-1915)에 의해 ‘하나님/하느님’ 번역의 성경과 함께 일본 주재의 미국성서공회의 지원을 받은 이수정의 ‘신’ 번역의 성경(마가복음)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여러 곡절을 거쳐 결국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용어로 최종 정착되었다.<sup>60)</sup> 하지만 일본에서는 한국 기독교에서 배척되었던 ‘신’(일본어-가미)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일본 기독교의 신 용어로서 정착되었다.

본고에서는 ‘가미’로 번역이 된 경위를 19세기의 중국의 한문 성경의 번역 과정에 나타난 영·미 선교사들의 용어 논쟁의 결과로서 이의 배경을 ① 미국에 의한 문호 개방 시기와 중국에서의 용어 논쟁 격화기와의 관련, ② ‘신’을 선호한 미국 선교사 주도의 일본어 성경 번역, ③ 일본어 성경 번역에 있어 주요 저본으로 사용된 BC역의 영향으로 분류하여, 이의 정황을 설명하였다. 일찍이 16세기부터 기독교가 일본에 전해졌지만 개신교 전래 이전에는 ‘가미’라는 용어가 기독교의 신 용어로 사용된 적은 없었다. 1853, 1854년 페리선의 내항 이후 미국에 의해 문호가 처음 개방되고, 일본어 성경 번역과 일본 선교에 있어 미국 선교사의 주도적 역할이 자연스럽게 ‘가미’로의 번역에까지 이르렀다.

59) 용어 신을 선호한 모리슨은 신이 여러 존재의 존재를 가리킴이 아니라 오로지 한 분만이 존재하다는 올바른 신개념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신과의 브리지만은 모리슨의 권위를 빌려 용어 신 사용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참조, E., Morrison, *Memoirs of the Life and Labours of Robert Morrison, D. D.*, 1 (London: Longman, 1839), 200-201; E. C. Bridgman, “Chinese Version of The N. Testament: Article on Elohim and Theos”, *Chinese Repository* 19 (1850), 340-343.

60) 참조, 민영진, “로스 역 누가복음서의 서지 사항과 번역의 성격”, 『성경원문연구』 2,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8), 146-147.; 옥성득, “개신교 전래기의 신 명칭 용어논쟁-구역 성경 번역기(1893-1911)를 중심으로”, 『기독교 사상』 418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200-222.



이에 앞서, 중국에서는 1842년 난징 조약 이후 일부 지역에서 기독교 선교가 자유로워진 후, 1843년의 홍콩에서의 선교사 대회의를 통해, 공동 성경 번역을 결의하게 되었으나, ‘상제’로 번역할 것인가 아니면 ‘신’으로 번역할 것인가라는 용어 문제 등을 두고 영·미 선교사가 대립하다 공동 성경 번역을 위한 대표자 위원회는 분열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이 미국에 의해 처음 문호가 개방될 당시에는, 런던선교회의 선교사들의 번역에 의한 ‘상제’역의 대표본 성경이, 영국성서공회의 후원으로 1854년 신구약이 이미 발간되어 있었고 ‘신’역은 미국성서공회의 지원과 함께, 브리지만이나 컬벳슨 등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번역이 진행되고 있었다.

일본 국내에서 일본어 성경 번역을 주도한 이는 헵번과 브라운과 같이 중국의 성경 번역 과정에서 ‘신’을 선호하였던 미국인 선교사들이다. 한문 성경이 일본과 같은 한자 문화권에서도 읽혀졌음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성서공회가 지원하는 ‘신’역의 BC역을 따라 동일한 한자인 일본어 ‘가미’로 번역됨은 당시로서는 자연스러운 상황이었다. 이는 중국의 용어 논쟁의 결과가 일본의 ‘가미’로의 번역에 영향을 끼친 상황들이다.

성서학의 발전과 아울러, 중국에서의 ‘신’과 로우리의 주장대로 성경의 엘로힘은 절대신, 유일신이 아니라 일반 신격을 나타내는 총칭 명사라는 하나의 성서학적 해석으로 일본에 있는 미국 선교사들에게 ‘가미’로의 번역에 대해 설득력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기독교의 유일신, 창조주, 절대자를 나타내는 데 있어, 일본어 ‘가미’를 사용하였을 때, 일본 기독교인들이 이 용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였음은 분명해 보인다.

이 외에도 정작 ‘가미’로 번역된 데에 메이지 시대에 신도의 ‘가미’의 개념을 유일신화하려는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한편, 신도가 일본의 국가 종교이기까지 했던 시기에 ‘가미’가 우상숭배라든가 하며 논란을 일으키며 용어 논쟁을 일으킬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기리시탄에 대한 무시무시한 탄압의 역사를 잘 기억하고 있는 일본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은 일본 땅에 기독교를 무사히 정착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일본인에게 친숙한 ‘가미’로의 번역으로 타협을 선택하였을지도 모른다.

이상, 본고의 마무리에 있어서, ‘가미’ 번역으로의 배경에 대해 새로운 가능성도 함께 제시하였다. 일본의 기독교 역사는 한국보다 먼저 전파된 천주교와 개신교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 비율을 고려한다면, 일본에서 기독교는 아직 마이너리티(minority) 부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상황과는 사뭇 다른 이러한 일본의 기독교 전파 상황은, 절대자, 유일

신을 가리키는 용어를 일반 용어 ‘신’에 해당되는 일본어 ‘가미’로 번역함으로써 인해, 절대자나 유일신 개념을 가지는 용어의 부재와 관련한 면이 있지 아니한가라는 의구심이 든다.<sup>61)</sup> 일본 기독교의 현 전파 상황과 관련해서는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기독교의 신 용어와 기독교 전파의 상관관계 역시, 기독교의 신 용어와 관련한 차후의 연구 과제로 제시하며, 일본 개신교의 ‘가미’로의 번역에 대한 본 논고를 마치고자 한다.

<주제어>(Keywords)

가미, 용어 논쟁, 일본 초기 개신교 성경, 브리지만-컬벗슨역, 대표본.

Kami, Term Question, Japanese Early Protestant Bible, The Bridgman and Culbertson's Version, The Delegates' Version.

(투고 일자: 2015년 1월 10일, 심사 일자: 2015년 2월 27일, 게재 확정 일자: 2015년 3월 10일)

61) 필자는 일본의 기독교 신 용어로서, ‘가미’로의 번역이 일본에서, 기독교 전파가 저해된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조차도 신사에 가미로서 모셔졌던 일본 문화에 있어서 ‘가미’로 불려지는 God나 예수는 일반 일본인들에게 수많은 가미들 중의 하나의 가미로 인식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무신자일지라도 하나님/하느님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한 분의 지고의 초월자를 연상하기 쉽겠지만, 일본인은 ‘가미’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오랜 전통의 일본 고유의 여러 가미 관념을 자연스레 떠올릴 것이다. 이는 필자가 주변의 30여 명의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근거로 얻은 잠정적 결론이다(인터뷰 기간: 2012.12-2013.2, 인터뷰 대상: 립교 대학원 기독교 연구과 학생, 도쿄 기요세 일본어 교실 교사 등, 연령: 20대~80대. 인터뷰를 한 일본인 중 ‘가미’라는 단어로 창조주, 절대자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일본인은 거의 없었다). 언어에는 사상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자, 유일신에 해당하는 고유 용어가 존재하지 않음은 이에 관련한 사상의 발생도 저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신 용어와 기독교의 전파력의 상관관계는 여러 문화와의 비교 연구로 규명 가능하며, 종교학 분야에 있어서 하나의 이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신 용어와 기독교 전파력의 상관관계는 해당 용어의 이미지가 가지는 힘이나 영향력과 관계함으로 필자는 이를 ‘(신)용어의 정치 이론’ 혹은 ‘(신)용어 영향 이론’이라고 잠정 칭한다. 기독교 신 용어와 기독교 전파력의 상관관계는 본고의 결론이 아니라 기독교의 신 용어와 관련한 새로운 연구 과제로서 제시하는 것이다. 다음의 논문에서도 한중일이 함께 풀어갈 용어로서 신, 상제, 천주 등 기독교의 하나님 용어를 우선적으로 제시한 적 있다. 민영진, 전무용, “한국어 번역 성경에 나타난 중국어 성경과 일본어 성경의 영향”, 191.

<참고문헌>(References)

- 김선희, 『마테오 리치와 주희, 그리고 정약용』, 서울: 심산출판사, 2012.
- 민영진, “로스 역 누가복음서의 서지 사항과 번역의 성격”, 『성경원문연구』 2 (1998), 120-167.
- 민영진, 전무용, “한국어 번역 성경에 나타난 중국어 성경과 일본어 성경의 영향”, 『성경원문연구』 19 (2006), 176-199.
- 옥성득, “개신교 전래기의 신 명칭 용어논쟁 — 구역 성경 번역기(1893-1911)를 중심으로”, 『기독교 사상』 418 (1993) 200-222.
- 이만열, 옥성득, 류대영, 『대한성서공회사』 I,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 이환진, “19세기 중국 개신교회의 용어 논쟁 그리고 한국 개신교회와 일본 개신교회의 하느님 용어-제임스 렉(James Legge)과 『대표본』(신약, 1852)을 중심으로”, 『신학과 세계』 79 (2014), 7-63.
- 『新約聖書馬可伝』, J. C. Hepburn, S. R. Brown 訳, 横濱: 米國聖書會社, 1872.
- 『新約全書』, 横濱: 米國聖書會社, 1881.
- 海老澤有道, 『日本の聖書』, 東京: 日本基督教団出版局, 2005.
- 海老澤有道, 『日本キリシタン史』, 東京: 塙書房, 1966.
- 岡部一興編, 『へボン在日書簡全集』, 高谷道男·有地美子訳, 東京: 教文館, 2009.
- Cary, O., 『日本プロテスタント宣敎史-最初の50年(1859-1909)-』, 江尻弘訳, 東京: 教文館, 2010.
- 鈴木範久, “カミの訳語考”, 『秘められた意味』,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1977, 282-332.
- 鈴木範久, 『聖書の日本語』, 東京: 岩波書店, 2006.
- 鈴木範久外, 『聖書と日本人』, 東京: 大明堂, 2000.
- 高谷道男編訳, 『S. R. ブラウン書簡集』, 東京: 日本基督教団出版局, 1965.
- 前島潔, “日本に於ける基督教用語「神」に就いて”, 『神學研究』 29:6 (1938), 1-17.
- 望月洋子, 『へボンの生涯と日本語』, 東京: 東洋印刷, 1987.
- 柳父章, 『ゴッドと上帝-歴史のなかの翻訳者-』, 東京: 筑摩書房, 1986.
- 山口修, “日本史における“神”の問題”, 『聖心女子大学キリスト教文化研究所報』 3, 東京: 聖心女子大学キリスト教文化研究所, 1976, 1-3.
- 山口玲子, 『とくと我を見たまえ-若松賤子の生涯-』, 東京: 新潮社, 1980.
- 『キリスト教人名事典』, 東京: 日本基督教団出版局, 1986.
- <http://www.e-stat.go.jp/SG1/estat/List.do?bid=000001047640&cyclo=0>
- <http://www.meijigakuin.ac.jp/mgda/main/waeigorin.cgi?zoom=0&mode=01&edition=01&word=kami>

- Boone, W. J., "An Essay on the proper rendering of the words Elohim and Theos into the Chinese Language", *Chinese Repository* 17 (1848), 17-52, 57-89.
- Boone, W. J., "Explanation and Note upon Art III., in the July No of Vol. XVII, entitled A few plain Questions", *Chinese Repository* 18 (1849), 97-98.
- Brown, S. R., "Japan", *The Sixty-Fourth Report of 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1868), 200-202.
- Bridgman, E. C., "Chinese Version of The N. Testament: Article on Elohim and Theos.", *Chinese Repository* 19 (1850), 340-343.
- Estes, Ch. S., "Christian Mission in China", Ph.D dissertation, Johns Hopkins University, 1895.
- Lowrie, W. M., "Remarks on the translation of the words God and Spirit, and on the transferring of the Scripture proper names into Chinese", *Chinese Repository* 14 (1845), 101-103.
- Lowrie, W. M., "Remarks on the Words and Phrases Best Suited to Express the Names of God in Chinese", *Chinese Repository* 15 (1846), 568-574, 577-601; *Chinese Repository* 16 (1847), 30-34.
- Mateer, R. M., "Some Objections", *The Chinese Recorder and Missionary Journal* 37 (1906), 310-313.
- Morrison, E., *Memoirs of the Life and Labours of Robert Morrison, D. D.* 1, London: Longman, 1839.
- Ritter, H., *A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 in Japan*, Tokyo: Methodist Publishing House, 1898.
- Williams, S. W., "The Controversy among the Protestant Missionaries on the Proper Translation of the Words God and Spirit into Chinese", *Bibliotheca Sacra* 35 (1878), 732-778.
- Wylie, A., "The Bible China", *The Chinese Recorder and Missionary Journal* 1 (1868), 121-128, 145-149.
- Zetzsche, J. O., *The Bible in China*, Sankt Augustin: Institut Monumenta Serica, 1999.
- "Chinese Language and Dialects", *The Missionary Herald* 31 (1835), 197-201.
- "Memoirs of the Life and Labors of Robert Morrison D. D., F. R. S., & c. Compiled by his widow", 2 Vols., London, 1839, 552, 544, *Chinese Repository* 10 (1841), 25-37.
- "The Chinese Language", *Chinese Repository* 3 (1834), 1-14.

<Abstract>

**Study on the Translation of ‘神(かみ)’ in Early Japanese Protestantism  
in Relation to the ‘Term Question’ Debate  
in Early Chinese Protestantism**

Yerem Hwang  
(The University of Tokyo)

Strictly speaking, there exists in Japan no term for God as a monotheistic deity. The term for God in the Japanese Bible is ‘神’(かみ-Kami), a word that has been applied traditionally to the deities worshipped by the Shinto(神道). The Christian population in Japan is just around 1%, and it is not likely that a non-Christian would hear the word, ‘Kami’ and think of the Creator or the Absolute Being.

This paper pursues the reasons why 19<sup>th</sup> Century’s Japanese Protestant adopted ‘Kami’ for God. The origin of Kami as a Japanese Christian term, is deeply related to 19<sup>th</sup> Century’s Chinese Bible translation, especially ‘term question’ for the Christian deity in Chinese language. British missionaries of London Missionary Society insisted on the use of ‘上帝’(ShangTi) for God, while American missionaries preferred to use ‘神’(Shen). As the result, two translations appeared: the Delegate version(上帝 version, 1854) and the Bridgman-Culbertson’s 神 version(1863).

This paper clarifies how the British and American missionaries’ ‘Term Question’ controversy affected the translation of the word for ‘God’ in the early Japanese Protestant Bible. The following three circumstances are validated in detail. ① Japan opened her door to America first when the ‘term controversy’ in China was at around its peak. ② 神-favoring American missionaries took hegemony in the Japanese Bible translation. ③ The Bridgman-Culbertson’s version (神 version) was the most important source for Japanese Bible translation. These three points demonstrate how the 19<sup>th</sup> Century’s term controversy between British and American protestant missionaries accounts for the use of the term ‘Kami’ in the early Japanese Protestant Bible.